

# 조선내화(주) 「이훈동」 회장 그는 누구인가?

## 이훈동 회장의 경영철학...

「한국의 내화물은 내가 책임진다」

- 내화물 공급을 통해 산업발전과 국가번영을 이룬다.
-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기와 물이 필수적이듯이 각종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 원자재인 내화물은 산업의 공기나 물과 같다.

한국의 내화물 회사라면 누구나 조선내화가 떠오르고 조선내화라면 이훈동 회장이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마련이다. 왜 그럴까? 이회장이 창업주라서 그런가? 그건 절대 아니다.

그것은 이회장의 내화물 산업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과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내화물 사업 한가지에만 매달린 경영인이기 때문이다.

1947년 회사 창업이후 얼마나 많은 사업기회와 변화의 세월을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내화물이라는 외길만을 걸어온 데는 이회장 나름대로의 '경제발전 기초론'에 입각한 것이다.

곧 경제의 번영을 위해서 각종산업이 발전해야 하고 산업발전의 기반(基幹)은 다름 아닌 중화학공업의 육성이며 이를 뒷받침해줄 기초원자재이자 생산재 소비품인 내화물 공업의 발전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제 번영을 위해서는 내화물 발전이 가장 기초가 된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이훈동 회장이 이를 확고한 신념으로 여기게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계기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빈약했던 1958년 이 회장은 호남비료 건설과 관련하여 민간인 대표중 한사람으로 유럽 시찰을 하게 되었다. 그 방문국 중 하나가 독일이었던 바, 당시의 독일은 세계 제2차대전의 패전국으로 국가 재건과 복구를 위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이미「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공업국으로 자리잡고 있었으며 특히 중화학공업의 건설이 눈부실 정도로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회장은 문득 그 뿌리가 무엇이나? 에 대한 궁금증으로 몇몇 산업계 인사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그 중의 저명한 박사 한분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들은 말이 오늘의 조선내화를 일구게된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고 한다.

“공업선진국일수록 내화물 공업이 크게 발전했으며 공업후진국일수록 내화물 공업이 미미한 것은 내화물이 각종산업에 필요한 물과 공기 같기 때문입니다.”

당시 완도와 성산 광산에서 내화물 제조에 필요한 양질의 원료를 생산하여 내화물을 제조판매하고 있었던 이회장은 그 말에 큰 감명을 받고「적어도 우리나라의 내화물만은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를 가졌으며 이때 느낀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이 조선내화를 오늘날 국내최대 내화물 업체이자 세계 5대 내화물 업체로 꼽히는 기업으로 키우게 되었다.

## 이훈동 회장의 기업윤리관...

「기업경영의 근간은 가족정신이다」

- 구성원끼리 서로 돌보고 아끼고 희생하는 가족 정신적인 사랑이 실현될 때 기업의 발전요소가 충족된다.

이훈동 회장의 기업윤리관은 가족정신이다. 구성원끼리 서로 돌보고 아끼고 희생하는 가족정신의 사랑이 실현될 때 비로소 생산성 향상과 창의력 개발과 같은 기업의 발전요소가 생긴다는 것이다.

기업은 단순한 영리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전문적 제열화를 통한 발전만이 종업원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이익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IMF를 맞아 여러 가지 사업으로 허둥대는 타

회사들을 볼 때 이회장의 기업 윤리관은 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이훈동 회장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

이훈동 회장이 회사를 창립한 목포지역은 일제때 일본 국이 수탈의 경유지(항구)로 한때 5대 도시로까지 부흥하였으나 농업과 어업이 주업이 된 지역적 특색 때문에 공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따라서 이회장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직책도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남 발전의 일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고 이를 위해 장학금 지급을 통한 인재발굴육성, 문화재보존발굴, 전통문화예술진흥, 지역적성사업유치 등의 사업추진을 지원하여 전남도민의 화합과 단결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1964. 8 목포상공회의소회장(6선) : 신안해저유물박물관 건립운동추진 등
- 1979. 6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 목포항개발촉진 및 상의활동지원
- 1984. 5 전남지역개발협의회 회장 : 5년간 43억원 성금 모금하여 장학사업, 문화재보존, 문화예술진흥 등

- 1986. 2 대한광업회 회장 : 광업회 숙원사업 해결 그 결과 기업을 통한 사회활동을 인정받아 이회장은 정부로부터 1974년에 동탑산업훈장, 1982년에 은탑산업훈장, 1984년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상하였다.

#### 이훈동 회장의 장학사업...

이훈동 회장의 어린 시절에 “일제의 통치아래서는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부친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남들과 같이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한학에만 열중할 수밖에 없었다. 글과 그림솜씨가 유난히 뛰어나 인근 동네 어른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던 이회장은 비록 신식교육은 못 받았지만 한학과 일어는 능통하였으며, 후일 전남대 경영대학원과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는 만학의 향학열을 불태웠다. 이같은 이회장의 어린 시절 배움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1978년부터 회사의 종업원에게는 중·고등학교 학자금은 수의 제한 없이 지급하였으며, 97년도부터는 한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며 차후 그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회장은 대외적으로 많은 장학사업에 투자하여 불우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는 역할을 서슴지 않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 류	목 적	수혜자	지급액	기금액
1. 성옥문화재단 ( '78 ~ '97 )	장학금, 소년소녀가장	2,215명	1,250,670	
	문화상	77명	164,800	
	효행상	42명	47,000	
	연구비, 출판보조	24명	17,500	
	계	2,358명	1,479,970	2,980,500
2. 무궁화장학회( '84 ~ )	경찰자녀장학금	매년 400명	1,352,000	360,000
3. 성 옥 상( '91 ~ )	요업발전을 위한 공헌자	4명	35,000	200,000

▲이훈동 회장의 장학사업내용

### 이훈동 회장과 조선내화(주)

조선내화는 일제시대에 침략을 위한 군수물자(철강 등) 조달공장의 하나로 설립되어 운영되었는데 해방후 1947. 5. 15일 미군정으로부터 한국인이 불하를 받아 운영하던 것을, 6.25사변 직후 폐허가 된 공장을 1953년 3월 이훈동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생산 활동을 시작하였다. 조선내화의 발전은 1960년대 경공업 중심에서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하면서 동반성장의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다. 초창기 1964년부터 급속하게 확대되기 시작한 시멘트공업의 성장이 내화물 공업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면 1973년 포항제철의 제1기공로 준공은 조선내화 성장의 일대 도약의 발판이 된다. 포항제철이 조선내화의 내화물을 신임하고 동반자적 성장을 거듭한 것은 「준비된 내화물 회사」로서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조선내화는 1950년 내화물 회사로서는 최초로 독일의 KERA kiln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대량생산의 길을 열어놓았고, 1964. 9월에는 업계 최초로 KS규격을 획득하였으며, 한국에서 제일 좋은 양질의 내화물 원료인 납석과 점토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포항제철의 내화물 공급처는 당연히 조선내화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던 내화물을 국산화 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사정으로는 포항제철의 요청에 따라 1974년까지 포항 제1공장을 준공토록 하였으

며, 포항제철의 제 2, 3, 4 고로가 증설하면서 부정형전 문공장인 포항 제2공장이 설립되었고 1984년 6월에는 국내 최초이자 동양에선 일본 다음인 슬라이딩노즐공장을 준공하였으며, 연주용 공장이 1987년도에 준공되었고 광양제철소 증설에 대비하여 내화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광양제철 준공 10개월 전인 1986년 9월 광양 내화물 공장을 준공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1981년 1월 포항공장에 기술연구소를 설치하여 현재 내화물 국산화를 99.8%를 실현하였고 연구인원 총 54명으로 비금속광물 기초원료 연구는 물론 내화물 기술은 세계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

현재 조선내화는 협력업체 포함 약 1300여명으로 총 생산능력 연산 240,000톤의 내화물 단일회사로선 세계 4위의 거대회사로 탄생하였다. 97년도 실적으로 보면 생산실적 약 216,000톤 매출액 2,120억원, 기술개발투자 30억원으로 생산과 외형에선 국내외의 선두회사로써 손색이 없다.

1994년 10월에는 영국 로이드 인증기관으로부터 ISO 9002 인증을 획득하여 해외 시장을 위한 사전포석을 완료하고 수출확대에 주력하여 21C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내화물 회사로 성장할 것임이 확실하다.